



제목	세계민족복식
발행언어	한국어
발행처	민속원
발행일	2010. 8. 20.
저자	小川安朗 조우현 · 박춘순 옮김
출판국가	대한민국
페이지수	327
ISBN 또는 ISSN	978-8956389899

내용 요약

민족복식은 언어·종교·역사·풍습 등을 공유하고 일정지역에 국가적 집단을 만든 사람들이 착용하는 고유의 복식으로서, 세계 공통의 국제적 복식에 대치되는 각 민족의 독자적 복식으로서, 아파다나의 부조에 표현된 다양한 민족복식은 다리우스 1세 치세의 기원전 6-5세기 인류 문화의 발자취라 할 수 있다. 아파다나의 부조에 표현된 민족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복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.

이 책의 저자 오가와 야수로는 세계각지의 민족복식의 현지조사를 시도하기 위해 40여 년간 57개국을 취재 및 촬영한 슬라이드 사진 2만 여장, 수집한 의복 200여 점, 그 밖의 기록, 프린트, 노트 등의 연구자료를 집성하여 각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평상복식에 대하여 그 재료·구성·형태·착용·용법·풍습 등의 실태를 분석하였다. 그리하여 복식형식의 분류, 복식변천의 원칙 등의 기본 조항에 준거하여 구분하였고, 각각의 민족복식을 범용하고 있는 인종의 민족성, 기후풍토와 문화적 변천상의 환경·생업·의식주·관습 등의 생활모습, 현대적 동향의 문화변용 등과 비교하여 가능한 한 도표를 포함하여 많은 사진자료를 배열하여 그 발생·전개·변천 등의 과정을 명시하였다. 특히 저자는 민족복식의 계보를 체형형인 초형(礎型)복식, 빙설지대의 체형형인 방한포전(防寒包纏), 습열지역의 요의단장(腰衣單裝), 권수패포(drapery), 건열지역의 복면포신(覆面包身), 장거관의(長裾寬衣) 등 12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, 이는 민족복식의 분류 기준이 되고 있다.